

“올 금융산업 더 어렵다... 수익구조 다각화 하라”

순이자마진 축소, 경쟁 심화, 대출 둔화...
“수익기반 글로벌화-디지털 역량 강화를
자산성장보다 이익성장에 초점 맞춰야”

한국금융연구원 진단

올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로 은행산업이 더욱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수익구조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글로벌과 디지털 부문 강화와 비용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국내 은행의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금융환경 요인 중 순이자마진(NIM) 축소와 대출자산 성장 둔화를 꼽았다.

실제 글로벌 무역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세계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경제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취약기업의 부실리스크가 증가하고 은행의 순이자마진도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평균 NIM은 1.54%로 2018년(1.60%)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NIM은 은행의 수익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으로 가계 대출이 억제되면서 은행의 대출자산 성장도 점차 둔화하는 상태다.

실제로 최근 신한금융은 실적발표 컨퍼런스를 통해 “올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NIM은 3bp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B금융 관계자도 “기준금리 인하와 안심전환대출 영향에 기인해 연간 NIM을 1.0%내외 수준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응해 비이자이익부분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부실 사태로 촉발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 부담 증가도 불가피해졌다.

경쟁 심화도 은행산업의 어려움을 지목된다. 오픈뱅킹 확대에 따른 은행 간 경쟁을 넘어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제3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은행과 기술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핵심 경영과제로 수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그동안 자산성장 중심의 영업관행으로 이자이익에 크게 의존하는 수익 구조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총이익 중 비이자이익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사진=시장경제DB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자산성장성보다 이익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수익구조 개선과 균형이 우선”이라며 “소비자 보호에 기반을 둔 판매중심의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수수료수익을 확대하고 비

이자수익을 획득하는 수익성 제고형 영업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향후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의 규제 강화에 대응해 신용대출이나 소호대출,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할 경우 신용리스크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영업이익보다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률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이 차별화된 해외진출 전략을 통한 수익기반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영업이 정착되도록 전 부문에서 디지털금융 역량이 균형 있게 강화하는 것도 대응 방안으로 꼽혔다.

또한 총이익 증감에 대응해 물건비와 인건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방안을 마련해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은행 경영성 고려사항으로 지적된다.

저성장 저금리로 은행 수익기반이 약화하는 가운데 현재의 노동시장과 급여체계의 유연성을 감안하면 은행의 이익 증가율이 인건비 등 비용증가율을 상회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화에 따른 인력과 점포 수요 감소에 대응하면서 은행대리점이나 은행공동점포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인건비 중심의 비용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국내시장에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적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고객 장악력을 높이는 동시에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희원 기자 leeyoon@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THE GREATEST BOXER SHOWING OFF HIS RIGHT HOOK SHOT ON A LEICA




SOFORT INSTANT CAMERA. THE LEICA MADE FOR FUN.
LEICA STORE BOSTON 74 ARLINGTON ST

Print & Publishing Bronze Lion Campaign

Title: ALI 무하마드 알리
Client: LEICA STORE BOSTON 라이카 스토어 보스턴
Agency: ARNOLD WORLDWIDE, Boston
Product: CAMERAS 카메라

Copy: The Greatest Boxer Showing Off His Right Hook
Shot on a LEICA
오른쪽 훅을 보여주는 위대한 복서 라이카 카메라로 담다.

‘코로나 변수’로 금리·주가 요동

투자 심리 위축... 안전 선호 신흥국 금리·주가 하락 움직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 우려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요국 금리, 신흥국 주가, 통화 가치 모두 하락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금리(국제 10년물)는 하락하고, 주가는 대체로 상승했다.

미국 금리는 1월 초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자 하락했다. 주가는 신종 코로나 우려로 하락하다가 양호한 기실적과 경제지표로 2월 들어 상승전환했다.

MSCI 지수 기준 1월 1일~2월 10일 중 선진국 주가는 2.3% 올랐다. 같은 기간 주요 신흥국 주가는 2.5% 하락했으나 국가별 움직임이 상이했다.

중국의 경우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수 증가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주가가 큰 폭 하락했다. 중국 춘절 연휴 이후 지난 3일 상해 종합지수는 7.7% 떨어

졌다. 반면 터키와 멕시코 주가는 상승했다. 터키는 기준금리 큰 폭 인하(0.75%포인트)로, 멕시코는 미국의 마-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비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신흥국 금리도 터키, 남아공, 브라질, 러시아 등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로 하락했다. 중국도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감으로 하락했다.

통화 가치도 요동쳤다. 신흥국 통화는 대체로 약세를 보인 반면 미 달러화는 독일 경제지표 부진, 영국-EU 간 미래관계 협상 불확실성에 따른 유로화 및 파운드화 약세로 강세를 보였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강해지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2월 들어 신종 코로나 우려가 일부 완화되며 약세 전환했다.

국내 외환시장도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10일 기준 1187.1원으로 12월(1156.4원)보다 2.0% 올랐다. 1월 초 중동 리스크가 일시적 상승 요인에 그친 가운데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신종 코로나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했다.



사진=한국은행 전경, 시장경제DB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전월보다 확대됐다. 1월 변동률은 0.39%로 12월(0.32%)보다 커졌다.

그러나 대외 차입여건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내 은행의 중앙기 대외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차입기간 장기화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상승했다. 단, 단기 대외 외화차입 가산금리와 외평채(5년) CDS 프리미엄은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채권 자금이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상당폭 유입되면서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주식자금은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유입 폭이 축소됐다.

윤희원 기자 leeyoon@meconomynews.com

온라인 구매 증가로 카드 승인 7% 늘어

작년 4분기 전년비

작년 4분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포함한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과 승인건수는 각각 225조1000억원, 56억6000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10.1% 증가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구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또한 화장품·비내구재·면세점·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 증가와 정부의 세계지원 정책 효과를 앞둔 구매수요 증가가 반영됐다.

사용주체별로 보면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 늘어난 185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법인카드 승인금액도 3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승인건수의 경우 개인카드와 법인카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2%, 8.5%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3조5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성장했다. 이는 전년 대비 따뜻한 날씨로 인한 외부활동 증가로 관련 서비스 분야 이용 수요가 증가해서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최근 카드 이용금액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한 1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도매 및 소매업(5.8%) ▲숙박



사진=시장경제DB

및 음식점업(5.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3.9%) 등 분야에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교육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3조6600억원을 기록했다. 일부 업체의 업종변경 영향을 제거하면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운수업의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4조4700억원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승인 건수당 평균승인금액은 3만939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김병탁 기자 bkt4@meconomynews.com